

## 지방자치·종합

# ‘관광 전남’에 3조2000억 투입

2016년까지 여수 항일암 일출 명소화 등 133개 사업 추진

## 道, 관광개발 계획

전남도가 3조2000억여원을 들여 여수 항일암 일출 등 다도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

19일 전남도가 발표한 ‘전남관광 개발계획’은 오는 2016년까지 133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 ▲부안 쇼핑리어 관광 턴조성 등 34개 관광지 개발 1조 5399억원 ▲조도 전망의 섬 등 49개 전략주진 사업 1조242억원 ▲항일암 일출 명소화 등 46개 핵심전략 사업 6781억원 ▲관광상품 및 코스 개발 등 4개 관광 진흥사업 4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은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지역별로는 역사와 생태 자원이 풍부한 나주·담양·곡성·화순·함평·영광·장성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광주 근교 지역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영산강고대문화권을 연계한 건강·체험·휴양형 관광지로 특화시킨다.

이 밖에 보성·장흥·강진·완도 지역은 청정농수산물과 산림자원·한방자원을 활용한 낭생명힐링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영산호관광지 공사비 과다 계상 등

## 출자기관·지자체 부당행위 수두룩

## 전남도 자체 감사서 적발

전남개발공사의 영산호관광지 조성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등 전남도 자체 감사 결과 축직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일선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개발공사는 영산호관광지 토목공사를 하면서 철근을 27,538t·만운반하고도, 담당자는 ‘기를’로 착각해 2만 7538t을 운반한 것으로 반영, 2억 9000여만원으로 계산해 올리는 등 26건이 적발돼 8억5000여만원의 회수·감액조치와 인사상 조치를 당했다.

전남개발연구원은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여비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공동브랜드개발사업 연구용역비 6400만원을 집행하면서 본할계약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로고와 포스터 등에 사용되

는 대표이미지(EI) 개발 용역(1억 7000만원)을 맡기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수행할 때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이를 어겼다.

또 광주시는 산지 전용에 따른 복구비(4000여만원)를 예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업체에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신안군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와 상수도 해저관로사업(44억원)을 수의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보성군은 개정 전 조례에 근거해 원인자 부담금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를 낮게 적용해 3억3000여만원을 덜 걷어들이 것으로 밝혀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민간인사찰 죄, 입막음 대가 5천만원 전달”

## 민주 조사특위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A국장이 ‘청와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이 마련해주는 돈이다. 항소심 관계 선고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며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국회의원 업적 흥보 민형배 구청장 고발

## 광산구 선관위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번개모임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식지 동정란 등에 국회의원

업적을 흥보한 공무원 A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해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은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그에게 5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또한 평생 공무원을 한 사람이 5억원, 10억원이 어디에 있겠나.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운해 형사부장)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오전 10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다. /연합뉴스

B예비후보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 과정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C씨 등 2명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14일 선관위에 제출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직업란 등에 교수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도 ‘도 대학교 교수’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4일 실시한 민주당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26명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음식물과 교통비로 총 35만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 선관위는 이날 제1차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갖고 식사제공 건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600만원의 포상금을, 호별 방문을 통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운태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LED 및 태양광 관련 업체들과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중서 금형·LED 등 8000만달러 투자 유치

## 광주시투자유치단 협약 체결

광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배터리, 금형, LED 분야 투자유치 1500만 달러 등 총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의 자회사인 AVIC Energy는 광주의 모든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 3000만 달러를 광주에 투자해 자동차용 배터리팩 시스템과 태양광, 풍력발전소 관계 설비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 북경리판국제무역공사는 광주 투자유치단은 중국 노인관

객 유치를 위해 노인 전문잡지 금색연대, 장시국제여행사 등과 노인관광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광주 테크노파크는 지난 1월 필리핀 비즈니스센터 개소에 이어 중국 베이징에 비즈니스센터를 열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광운태 시장은 투자협약에 있어 개최된 재외기업의 투자설명회에서, 일찍이 광주를 떠나 광주의 변화를 잘 모르는 교포 기업인들과 중국 기업인들에게 변화된 광주의 산업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광주와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을 당부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서구의회 ‘막말 파문’ 구청장 사퇴 결의

## 김종식 청장 본회의 참석 거부… 의사일정 파행

## 서구 “방음벽 공사비 시공업체 환수 이해 못해”

광주시 서구의회가 19일 구의원들에게 인격도상 칭탁(광주일보 19일자 2면)을 한 김종식 서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과정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간부 공무원들까지 퇴장하면서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구의회(의장 오광교)는 이날 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서구의회 특별결의문’을 제택하고 “김종식 서구청장은 32만 서구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김 구청장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놓고 의원들에게 ‘무식한 낌새들이, 너희들

이 뭘 안다고’ 9급 시험에도 합격 못 할 놈들이’ 등의 막말과 폭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의회 전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김 구청장의 행태가 수차례 반복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서구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구청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의원들을 하대하며 막말을 하고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구청장과 서구는 결의문 제작 직후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우리 구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언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구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비 환수를 요구한 수녀원 방음벽은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신축’과 별개로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수녀원 측의 민원 제기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라며 “지난 16일 방음벽 공사비를 아파트 시공업체가 환수조치하라는 서구의회의 결정 통보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저지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는 ‘의회특위 사태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있도록 사태 해결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16일 오후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과 관련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우리 구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언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구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효성공인중개사  
공장·창고 전문

## 공장 임대

## ★ 하남공단 ★

- ① 80평 : 전기 60kW, 호이스트5t
  - ② 100평 : 전기 300kW, 호이스트5t
  - ③ 150평 : 전기 300kW, 호이스트5t
  - ④ 200평 : 전기 200kW, 호이스트5t
  - ⑤ 250평 : 전기 300kW, 호이스트5t
  - ⑥ 520평 : 전기 450kW, 호이스트2.8t
- 임대가 평당 20.00~23.000

## ★ 평동공단 ★

- ① 120평 : 전기 500kW, 호이스트2.8t
- ② 363평 : 전기 500kW, 호이스트10t, 15t
- 사출시설완비, 평당 23.000
- ③ 120평 : 전기 100kW, 호이스트5t
- ④ 185평 : 전기 300kW, 호이스트5t
- 신축건물 평당 20.000

## ★ 물류창고(하남공단) ★

- ① 135평 : 평당 17.000
- ② 293평 : 평당 16.000
- ③ 150평 : 평당 2만원(임동, 운암동)

## ★ 공장창고 임대접수증 ★

- T. 062) 521-6024 H. 011-602-4207 F. 521-6026

##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 연제동, 본촌동, 신운동, 용진동 일대 부동산전문

## 첨단2지구 상가·단독주택·다양학보

## 상가및근린시설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자이 옆코너 대지: 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3000세대, 용인2인근3000세대상권

체인음식점, 병원, 교육 등적합 평당: 300만

## 양산택지지구토지매매

본촌동원룸부지 300여평 평당: 160만

연제동이파트, 중학교앞도로변: 100평당: 280만

##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 양산초·중·고등학교앞지역: 37·65·160만주택별

양산동, 양산동성당주변택지: 61평, 평당: 110만

## 광주외곽인구

용진동 도로삼각코너: 1300평 평당: 130만

용감동지역: 900평 평당: 13만

## 시외매도물건

장성군 북이면 임야: 13,500평 평당: 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 약700평 평당: 50만

신동동생산녹지지역: 900평 평당: 40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50번지

T. 062) 572-8500 FAX: 572-0732

휴대폰 011-629-8500, 010-3613-7397

##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 나주혁신도